

/제/32/회/전/국/도/서/관/대/회/제/1/분/과/기/조/연/설/

독서새물결운동의 본질과 과제

김 효 정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목 차

緒言

- I. 독서새물결운동의 실체
- II. 독서의 본질과 기능
- III. 독서의 내외적 생태계
- IV. 독서새물결운동의 과제

結言

緒言

정보사회 도래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변화를 예견하게 한다. 21세기 미래사회는 인간의 성취지향적이고 물질지향적인 가치관에서 인간 내면 세계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꾸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실현하는 방법과 최대한으로 실현한 자아를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생애에서 의미추구 등 본능적 욕구가 아닌 이차적 심리요구로 부각되고 있다. 산

업사회에서 소홀히 되고 무시되었던 올바른 인간존엄과 자연스런 인간성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미국 도서관과 정보봉사에 관한 백악관회의(WHCLIS)는 1991년 20세기의 중요한 과제였던 생산성, Literacy,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21세기에 도전해야 할 과제를 다음¹⁾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지구촌 사회에서 경쟁 할 능력의 개선
2. 전 우주에 관계되는 환경문제 해결 모색

1) Matheus, V. H. Kids Need Libraries. SLMQ. v. 18 n, 3 spring. 1990. p. 168.

- 3.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으로서 원기 회복
- 4. 신속한 사회변화와 기술변화에 직면하는 힘이 되는 개인의 비문맹 또는 비콤포맹

그러므로 21세기 정보사회는 소비자로서, 유권자로서 판단력 있는 의사결정자와 능력있는 근로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성인(지도자, 부모)을 요구한다. 이 도전에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고등정신력 배양만이 대비할 수 있는 길이다.

‘독서력이 국력이다’ ‘읽고 쓰고 생각하자’라는 주제 아래 펼쳐지는 하나의 독서운동인 독서새물결운동의 실체를 살피고 그 本體인 독서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독서의 내외적인 생태계를 밝혀 독서운동의 당면과제를 규명하려 한다.

1. 독서새물결운동의 實體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는 1994년 3월 31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독서새물결운동을 선포하고 그 출범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운동은 문화체육부 후원²⁾으로 교육, 문화, 언론, 출판 및 청소년, 여성계 등 각계 각층의 사람이 모여 책을 읽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펼치는 범 국민운동이다. “독서력은 국력이다” “읽고 쓰고 생각하자”라는 구호아래 신한국 건설에 가장 중요한 정신적 토대로 책읽기의 생활화를 마련하려고 지난 해부터 추진되어 온 민간단체차원의 독서운동이다.

사업목적은

- 1)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5개년 계획
- 2) 21세기 정보시대 국제시대에 대응하는 능력

배양

- 3) 국민 정신의 기반조성으로 책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 구현을 이루어 21세기 국제화 정보화에 대비하는 문화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사업의 기본방침은

- 1)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영속적 범국민 독서생활화 추진(교육 언론 문화 및 도서관관련 단체)
- 2) 도서관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에 다양한 독서운동 전개
- 3) ‘책의 해’ 연계에 있다.

주요 사업은

- 1) 독서진흥을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교육 계획)
- 2) 독서공간확충(도서관 확보)
- 3) 독서습관 정착(가정과 학교)
- 4) 독서하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기풍조성(성인의 역할)

을 실현하여 국민속에 책을 심고 문예를 부흥시키며 인간성 및 민족성의 회복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주관하고, 책의 해 조직위원회와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참여하고, 문화체육부와 교육부, 내무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후원한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993년 출발의 해 : 독서열기 불붙이기

1994년 발전의 해 : 독서하는 사회분위기 정착 및 독서생활화, 독서운동 확산, 캠프운영, 문화 가족 운영 등

2) 문화체육부, 범국민독서새물결 5개년추진계획. 1993. 8.

1995년 확산의 해 : 책을 통한 공감대 조성과 국민 화합 운동 전개 社内 독서대학운영, 독서상담전화, 도서실설치 등

1996년 성숙의 해 : 독서 선진 국가로의 발전 추구, 독서축제, 학교교육과 연계 실시

1997년 정착의 해 : 독서하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의 실현

이상이 독서새물결운동의 실체이다.

II. 독서의 본질과 기능

1. 독서의 본질과 과정

독서는 두 개념의 정의가 있다. 좁은 개념으로는 단순히 책을 읽는다거나 보는 것이고, 넓은 개념으로는 책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독서자료 나아가 문화적 사회적 매체 그리고 자연적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새롭게 의미를 재구성하는 독자의 전략적 사고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독서는 그림 글자 글 책을 읽는다는 가벼운 개념에서부터 저자의 기호화된 의미가 독자의 뇌리에 다시 형성되어 재생하는 데 있어서 독자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생리적 지적 작용이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과정이라는 복잡한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Gray, R.에 의하면³⁾ 독서에는 3단계 개념이 있다.

1) 인쇄되고 기록된 기호를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

2) 낱말의 유창하고 정확한 인지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생각하는 연속속에 나타나는 독특한 의미의 용해 과정

3) 독자가 저자의 의미만을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 있는 의미심장한 생각에 관한 반영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첨가하고, 문제해결에서 이 생각의 반영을 이용하는 과정.

이 있다. 한편 동양에서의 개념도 거의 같다.

朱子는 ‘熟讀은 먼저 할 일을 앞을 바르게 보고, 그 뒤를 보고, 오른쪽을 보고, 또 왼쪽도 보아야 한다. 학문하는 길(道)은 窮理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공리의 쫓는 마음이 독서하는 데 있다’고⁴⁾ 하였다.

雲坪은 독서에는 口到, 眠到, 心到의 三到가 있는데 어린이는 오로지 입과 귀로 힘써 배우고 삼도 중 가장 급한 것은 심도다. 또 明字訓, 察語詠, 審文法의 三要를 分別하면 義理를 스스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독자가 우선 해야 할 일⁵⁾이라 하였다.

栗谷은 ‘독자는 반드시 바르고 敬하게 책을 대하고 앉아 오로지 마음을 뜻(志)에 모으고 정밀하게 생각하고 깊이 잠겨 義趣를 깊이 해석하고 매 句마다 실천의 방법을 구해야 한다. 입으로만 읽고 마음이 몸에 미치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면 책은 책이고 나는 나일뿐(書自書 我自我)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⁶⁾ 하였다.

독서과정에는 근육운동과 정신운동이 있다.

근육운동은 눈이 시각을 통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휩쓸어 보며 다음 줄로 이어 내려가며 응시와

3) Gray, W.S. Reading. IRA, 1984.

4) …熟讀 正看 背看 右看 左看…

5) 雲坪先生文集. 卷之十.

6) 栗谷先生文集, 卷之二十一. 擊夢要訣, 讀書章

정지 후퇴와 전진의 한줄기 연속운동이 일어나는 시각 운동이다. 동시에 읽은 내용의 의미가 바르게 이해되며 말하는 기관을 조정하는 근육이 인쇄된 기호로부터 바르고 효과있게 자극을 받아 소리로 반응하는 호흡행위로 생겨나는 것이 音讀이다. 반면 안면표정, 앞과 뒤 머리동작, 좌우 머리동작, 어깨동작 기타 몸짓으로 나타나는 외부 동작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정신 운동은 근육운동과 같이 자세하게 묘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 낱말의 시각 인지, 2) 읽은 것의 의미이해, 3) 이해된 생각의 독자반응이나 이용으로 대략 나뉜다.⁷⁾

첫째는 인쇄된 기호에서 독자의 적응과 의미의 발음으로 동시시의 인지를 느끼고 통합하려는 격려, 또는 覺省과정이다. 즉 a) 읽은 후 막연한 상태나 윤곽 b) 확실하게 지배하는 부분과 특수한 부분 c) 청각이나 시각 및 기타의 근육 운동과의 조정에서 의미를 깨닫는다.

둘째는 의미 이해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a) 망막을 통해 뇌의 시각센터에 도달하고 b) 통합된 개념의 연결 속에서 이 의미를 용해하는 과정이다. 독자는 낱말에 포함된 특별한 의미 때문에 스스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곧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주 원료로 이해하므로써 여기에서 독자가 습득한 의미있는 낱말의 범주와 질적 수준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경험을 취사선택하여 독서로 용해한 내용과 통합하여 일반적 의미로 이해한다.

셋째 이해된 생각에의 반응과 이용은 보완적 단계이다.

a) 추론과 내포 b) 저자가 표현하는 질과 효과

및 안전성 c) 서로 같은 주제에 관한 다른 저자와의 견해 비교 d) 새로운 상황에서 얻은 생각에의 이용과 응용 e)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해결에 확보된 정보이용 f) 사고와 행동의 개선된 모형을 얻으려고 생각의 통합을 거쳐 종합한다.

개인의 전 경험과 읽어 얻은 생각을 함께 비교하거나 그 타당성을 판단하고 또는 당시 개인의 동기 목적 태도 및 흥미에 대한 개인 문제에도 이용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낱말과, 저자에 의해 지배되어 온 독자의 사고까지도 내포한다. 곧 읽어서 나타난 생각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데서 독자는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고 이어서 창조할 수 있다.

이와같이 독서과정은 독자가 낱말 문장 문단 글을 읽을 때 읽은 내용에 대해 독자의 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연속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일련의 내용중 중요한 것과 적절한 요소로써 취사선택하고 그 요소를 적절한 관계로 높아보고 역시 각각을 위하여 그 무게, 영향력, 힘의 적절성에 따라 생각하며 구상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불분명한 영상이나 의미가 차차 확실하게 밝혀지고 글의 끝 부분에서 비로서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만들어 간다. 바로 정신적 체계나 목적 또는 요구의 영향력에서 모두를 선택하고 진압하고 부드럽게 하고 강조하고 상호연관하고 조직하고 조정해야 한다. 언어의 의미는 글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의 뇌리에 자극을 주고, 독서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석종합 정리 추론하는 사고능력을 길러 의미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능동적 전략적 사고과정이다. 특히 정신과정은 독자의 능력에 따라, 인쇄지면에 의하여 독자를 잡고 있는 목적에 따라, 독서자료의 친근감에 따라 변화된다. 옛 글에 독서는 외우

7) Gray, W.S. op.cit. p.7~20.

고(誦) 생각하는(惟) 것이다. 誦은 글로서 풍부하게 나를 덮어 채우는 것이요 惟는 그 義로서 진실하게 나를 얻는 것이다. 誦하고 惟하지 않으면 흘러버리고 惟하고 誦하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독서의 본질은 독자가 독서하는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저자의 견해를 평가하고 그 타당성이나 가치를 판단하여 구별하고 거절하거나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는 전형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한 통로(chanel)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독서를 매체로 창조적 사고가 가능하고 이를 거쳐 고등 정신력이 함양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보 활용력과 인간성 회복의 源泉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창조적 적응력을 키워 나가고 마침내 인간성 보존의 천연한 생태계 환경보호 운동을 이룰 수 있다.

2. 독서의 기능

인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독서를 통해 事物 즉, 事件과 物件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하고 새로운 경험과 개념을 획득하거나 개발하여 왔다. 정보사회에서도 독서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통로로써 기초 독서력, 기본독서력, 성숙독서력 등 단계마다 기능화하여 모든 인간육구와 충동을 개발하는데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힘의 源泉이 되고 있다. 이 샘물은 인간의 생각과 읽고 쓰는 능력(literacy) 그리고 독서환경에 따라 끝없이 퍼낼 수 있는 솟아 오르는 힘을 함축하고 있다.

옛 문헌에서도 독서는 궁리하는 것, 학문하는 것, 수양하는 것 그리고 인생 그 자체였다. 栗谷은 격몽요결에서 사람다운 길(道)은 궁리하는 것 보다 나

은 것이 없고 궁리하는 것은 성현의 마음쓰는 자취와 善惡의 效驗과 警戒할 것을 골라 독서하는 것 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는 다 책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朱子는 主敬을 기본으로 세우고 궁리를 끝까지 쫓고 反省을 그 實體로 실천하면 이 세가지는 시작을 이루고 끝을 이루게 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학문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학문하는 것은 독서와 궁리(생각)로 당연한 인간행위의 길을 밝힌 후에 바른대로 따라 勿過不及의 중간을 행하는 것이 사람다운이라 할 수 있다.

시대변천에 따라 독서의 목적은 변화하고 있으나 독서의 힘은 더욱 강조된다. 고대는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철학의 관조나 용변의 실재를 위한 시민훈련이 독서의 목적이었고, 중세는 성경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수단이 독서로 종교적인 목적이었고, 근세에는 유용한 정보획득이 그 목적이었다. 19세기까지 즐거움의 독서는 강조되지 않았고 넓은 지식 좋은 시민의 이해에 목적을 두었으나 근대에 이르러 문화생활이 넓혀져 좋은 문학형태 접근과 작품의 감상이 그 목적이었다. 현대 독서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현행사건에 대한 정보의 확보
- b) 계획에 가치있는 정보의 보장
- c) 특별한 흥미의 사건이나 문제에 관하여 더 배우기
- d) 시민적 사회적 산업적인 문제에 관한 의견 보장
- e) 사업과 전문적 개발에 관한 정보 보관
- f) 업무진행에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제안의 보장
- g) 메세지, 수업, 통신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
- h) 지시사항의 수용

- i) 업무사항의 수용
- j) 정보의 확대
- k)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극을 마음속에 확보하기

이상을 실제적 목적으로 구분하면

- a) 뉴스 추적
- b) 증거 탐색
- c) 알려져 있는 경험 획득
- d) 직업 적성의 개선
- e) 학습 흥미의 방어로 나누어진다.

도서관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a) 교육 b) 연구 c) 생활수단과 정보 d) 오락 e) 문화를 통하여 인간존중, 인간성 회복이 독서의 궁극목적이다.

인간의 독서행동은 그 목적이 무엇이거나 독서라는 매체(Medium)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용에 그 목적이 있고 동시에 창조적 적응을 전제로 하는 고등 정신력, 생각하는 힘⁸⁾에 귀착된다. 이 힘은 仁, 義, 禮, 智의 인성을 발달적 학습력과 정보력, 생산적 상상력, 창조적 사고력 그리고 잠재적 인간성의 네가지 형태로 類推할 수 있게 한다.

발달적 학습력 : 인간의 기초적, 본능적 학습에서 부터 배워서 아는 것(智)을 거쳐 단계적인 성장 발달에 따른 학습과 정보활용력, 이어지는 평생학습력과 함께 자아발견, 자아충실과 충전,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는 힘이다. 데이터에서 정보를, 정보에서 지식을, 그리고 지식에서 지혜를 얻어내는

합리적인 공리를 하게 하며 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습력과 정보기본기술(Learning and information skill)로 발전하고 이어서 연구조사와 개발로 인류를 보다 차원 높게 향상시킨다.

생산적 상상력 : 인간이 획득한 정보 지식은 인간의 상상을 자극한다. 이 상상은 인간본성과 연계하여 기쁨과 즐거움(禮)을 얻어내게 하고 합리적으로 재 생산해내는 생각의 흐름을 슬情적으로 이끌어 가는 힘이다. 서로 자극하며 격려하고 각성하게 하므로써 생겨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은 또 다른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게 하여 새롭게 피어나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상상력이다.

창조적 사고력 : 독서의 마지막 과정에서 보다 몇몇하고 義롭게 그리고 체계있게 통합하는 추론은 창조적 적응력을 키우는 생각하는 힘이고 고등정신력으로 개발된다. 이제까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고등정신력을 계발하게 하는 源泉적 힘인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이 힘이 몇몇하지(義) 못하면 그 개인은 결코 사람답지 못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오직 나 하나를 위한 精鍊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한 洗鍊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힘이다.

잠재적 인간성 : 인간은 智, 禮, 義로 얻어진 모든

8) 김효정 등저, 독서의 힘. 서울, 구미무역, 1992. p.14~16.

경험과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너덕하여 따뜻하고 풍요로운 仁한 心術 문화를 이루고 이어 인간의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증진시키어서 정보사회가 추구하는 人間性, 인간 尊重, 상실된 인간성 恢復을 가능하게 하는 천연한 인간 環境 자원을 함축하고 있는 힘이다.

이와같이 독서의 힘은 독자 개인이 생존하는 방법과 자신의 능력을 수정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경험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생애를 의미있고 흥미롭게 만드는 힘을 독자에게 부여한다. 그러므로 독서는 인간에게 고등 정신력 배양과 인간성 회복의 핵심인 천연한 인간 環境保護의 원천적 기능을 다할 수 있다.

Ⅲ. 독서의 生態系

1. 독서의 내적 생태

독서는 독자와 독서자료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생태를 형성한다. 이 생태계에서 독자는 주변환경에 에워싸여 있는 내적 主體이고 중심이다. 독서의 내적 생태계는 인간성장발달에 따른 독자의 인성, 인지능력, 심리현상, 독서능력, 독서흥미, 독서목적, 지능 등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 요소들은 독서본질과 연계되어 있다.

독서 본질에서 밝힌대로 독서의 내적 생태를 표면화하면 독서자료를 통하여 독자가 지식 정보를 수집, 평가, 판단, 구별, 거절,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글을 다 읽을 때까지 일어나는 생각하는 과

정의 연속이다. 인지심리학 측면에서는 감각, 지각, 연속, 경험, 사고, 학습, 결합, 정서의 단계들을 내포한다. 정보사회 측면에서는 독서능력은 언어능력에 속하고 언어능력은 학습력과 정보력에 직결된다. 따라서 인간의 학습력은 다음과 같은 표를 그릴 수 있다.

학습력 : 언어능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인간성 : 동기, 자아개념, 긍정적 태도, 인간관계 등

인지적 과정 : 기본과정, 고등정신과정, 내용 이해과정

정보력 : 정보처리;

도서판매채기본기술;

원문분석기본기술;

21세기 정보사회는 사회 경제 기술 정보 및 노동 시장들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절대적인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력과 정보력은 학교교육에 있어 중심 도전이 되고 있다.

학습력은 데이터에서 정보를, 정보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지혜를 발췌하는 기본기술(skill)이다. 정보력은 다양한 독서자료(source)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기본기술이다. 학습력은 언어능력, 인간성, 그리고 인지적 과정이 그 요소로 포함된다. 학습의 첫 요소인 언어능력(language ability)은 구어체와 문어체의 언어로 커뮤니케이트하는 능력이고 학교사회에서 핵심적 매체이다. 이 언어 기본기술은 인간이 많은 정보와 상호작용하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트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언어는 인간 지성의 구조를 그리도록 도와준다. 학습의 둘째 요소인 인간성은 수용하는 태도와 동기, 의지있는

태도,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학습을 쉽게 만든다. 개인의 기대치, 지식, 건강, 태도, 동기 등은 각기 다르고 생산적으로 이용하고 추론하는 통로가 된다. 이 통로로 인간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성공하는 기본기술을 가지고져 한다. 학습의 세째 요소인 인지과정은 언어능력과 적절한 태도에 대하여 정신적과정으로 인간이 더 차원 높은 이해를 성취하게 허용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은 생각하는 기본기술이라 부른다. 인지과정에서 다른 요소들과 같이 기억, 집중, 지각, 비교, 추리, 분석, 종합, 평가를 포함하는 기초적 과정을 바탕하고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 그리고 창조적 사고를 포함하는 고등한 과정의 구축이 내포된다. 긍정적 자아개념과 그 이행 그리고 칭찬 받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인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보력은 인지과정과 가깝게 연계된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도서관매체기본기술 그리고 언어능력과 직결되는 원문분석 기본기술을 그 요소로 한다. 첫 요소인 정보처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source에서 정보를 수집 조직 통합 이용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도서관 매체 기본 기술과 원문분석 기본기술이 작용한다. 정보 수집은 읽고 듣는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도서관 매체 기본기술과 같이 커뮤니케이션기술의 지원을 받는다. 정보 조직과 통합은 내용구조의 도움과 마음영역의 조직적 모형으로 의미있게 정보를 구축하는 인간의 능력이고, 정보 이용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고등한 인지과정 요소에 따른다. 새로운 기본기술로는 문제해, 정보소재파악, 적절한 정보 선택방법,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조직, 효과적인 활동 평가법을 아는 것이다.

정보력의 둘째요소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서 정

보를 소장하고 조직하고 평가하게 허용되는 도서관매체기술이다. 성공적인 학습력과 정보력에 중심이고 자료수집과 이용을 포함하는 기본기술의 특수 범주다. 정보처리기술에 더하여 저장 분류 접근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연구조사기본기술, 데이터 탐색, 편목, 자료선택, 기타 전통적인 도서관 방법이 보태어진다. 미래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미래 literacy의 기술적 이용도 강조된다. 워드프로세서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 탐색으로 개발되고 있다.

정보력의 세째요소는 원문분석기술로(text analysis technology)로 학습에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독서자료에서 지식 정보를 읽고 처리하는 능력은 학교와 사회에서 성공의 필수이다. 기록된 자료와 원문자료에서 얻는 정보는 공부안내, 내용구조, 이야기구조에서 공부부 돕는 것과 같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언어능력은 원문 정보 이해에서 성공을 결정한다. 원문 분석기술은 원문내에 중요한 표시를 하는 것 같이 구조적 aids를 분석하고 책의 표면구조는 구도와 특성으로 인지한다. 저자 의향과 원문에서 깊이있는 의미의 구조적 이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이상의 각 요소들의 나열은 완전한 연계나 계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기본 기술과정에서 묘사될 수 있는 요소들일 뿐이다.

언어능력은 학교와 사회에서 변화의 매체를 성공적인 학습력과 정보력에 중심이 된다. 효과적인 언어는 데이터에서 정보를, 정보에서 지식을 얻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이다. 그러므로 독서는 정보와 지식을 얻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통로이다. 인간사고의 복잡성은 행동심리학의 전통적 접근보다

더 복잡한 수준에서 헤아려져야 한다. 완전하게 배우려는 긍정적 태도와 경향은 특히 자발학습을 강조하며 학습력과 정보력을 완전하게 한다. 정보를 얻고 조직하는 능력은 도서관매체기술로 촉매된다. 정보처리기술과 인지적 처리기본기술은 인간이 정보를 통하여 지식을 얻어 내게 한다. 원문 분석 기술은 여러 형태자료에서 정보를 읽어 처음부터 지식을 얻는다.

이상의 각 기본기술과정의 대부분은 직접 인간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쳐야만 한다. 현대에는 교육심리 행동심리 언어심리 인지심리의 영향과 사회학 인류학 등과 함께 독서의 교육적 측면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21세기 정보사회는 인간 고등정신력의 함양을 목표로 학교교육 현장에서 독서능력에 관심이 집중되어⁹⁾ 있다. 독서는 현대와 미래를 살아가는 인간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일 수록 교육제도 속에 국가기간산업으로 체계있는 기본기술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 기본기술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인간은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고 강화될 것이며 이미 미래를 개척하여 향상하고 발전할 것이다.

2. 독서의 외적 生態系

독서의 본질과 그 내적 생태계가 읽고 있는 독자에 관한 보이지 않는 느낌의 사항이라면 그 외적 생태는 볼 수 있고, 보여지는 독서환경이다. 크게 독서자료, 출판문화, 도서관문화, 독서교육이 포함된다.

독서자료 : 독서자료는 독서에서 중심 매체로 물질

적 자료이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발생하여 문자와 회화로 기록된, 인간의 지식을 의식적으로 전달, 전파하는 도구이다. 그 생성과 발전, 저작자, 주제, 형태, 기술방법에 의해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자료로 개발하고 있다. 매체 자료면에서 종이(책)와 컴퓨터(뉴미디어)의 관계는 어느 기간 동안 두 매체가 공존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종이 인쇄 매체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어느 쪽 매체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자료에서 바른 독자에게 바른 자료를 바른 때 바르게 선택하고 독서자료를 건전하게 정비하는 것은 중대한 관심사이고 건전한 독서관경의 과제이다.

출판문화 : 출판문화는 독서의 외적 조건에서 독서 자료를 생성 배포하고 개발하며 만들어 유포하는 독서 환경이다. 암반에 새겨 기록한 형태에서 과피투스, 점토판, 양피지, 갑골, 죽간목독, 점백 등에 필사하는 방법을 거쳐 종이에 인쇄하여 출판하면서 정보사회에서 뉴미디어와 전자출판의 출현은 광 디스크까지 연구 개발하여 출판문화의 발전을 자극하고 있다. 인류 공생 공존 공영에 기여할 문화의식으로 무엇(출판내용) 얼마나(출판량) 어떻게(출판방법) 출판하고 어떻게 배달할 것(유통과정)인가에 따라 독서환경은 달라진다. 또 출판계의 서지·서목·서평작

9) Cultlip, G. C. Learning and Information.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1988. p.31~32.

업과 동시에 독자들에게 의한 또한 독자를 대신한 도서관인들에 의한 서지·서목·서평작업으로 독서환경의 오염과 공해는 제거할 수 있고 출판계와 독자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출판보도 기사는 건전한 독서환경의 맑은 샘터가 될 것이다.

도서관문화 : 도서관은 사회에서 쉽게 책을 볼 수 있는 사회적 구조의 대명사이다. 도서관은 주민의 교육 연구 정보 오락 그리고 문화 센터로 국가가 공인하는 독서환경이다. 공공도서관 이외에 작은 도서관운동과 같은 소규모 도서관운동이 뿌리있고 체계있는 도서관문화를 이루어내면 독서환경으로써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독서교육을 학습력과 정보력으로 교과과정에서 자리하게 하고 독서생활화에 연계하는 독서문화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 도서관 문화의 主體는 독서자료이고 출판문화의 核心은 독서자료로 서로의 연관과 공존 관계는 밀접하여 서로의 번영과 발전에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독서환경들이다.

독서교육 : 독서교육은 개인이 독서능력을 이행하도록 가르치는 작업이다. 독서의 본질과 내적 생태계에서 독서는 배우고 가르쳐야 할 인간의 본능적인 기능임을 입증하였다. 더욱 '아는 것이 힘'이라는 정보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등 정신력과 인간성 회복의 天然한 인간자원보호는 학교교육에서 각 교과목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속에 독서능력, 언어능력, 학습능력, 니아

가 정보활용력으로 구축되는 독서교육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따라 흉내내고 학교에서 교사와 학교도서관사서의 가르침으로 친구와 어울려 익히고 사회에서 모든 어른의 뒤를 따라 배우는 것이 그 첩경이다. 그러므로 독서교육은 형제없이 어린이 주위를 맴도는 확실한 독서환경이다.

21세기에 대비하는 사회는 '책을 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 이전에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 되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는 어린이'를 기르는 국가차원에서 독서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독서능력을 배우고 가르치고 익히는 건전한 독서 환경을 독서 외적 생태계로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IV. 독서운동의 과제

1. 독서의 본질과 그 생태계에 대한 바른 조명과 인식

독서는 그 본질이 생각하는 정신적 사고과정이고 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습력과 정보력에 핵심적 주체이다. 전통적으로 여가선용이나 문학감상의 소극적이고 정적인 수단이기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인간의 발달적 학습력, 생산적 상상력, 창조적 사고력 및 잠재적 인간성이 내포되어 있는 정보사회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통로이다. 그러므로 천연한 인간자원의 힘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조명함으로써 독서의 본질과 기능을 재인식하여 정보사회에서도 기초적인 기본기술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코 일시적일 수 없는 영속적인 기본기술(skill)이고 本을 무시한 末의 意識으로는 그 근본 목표를 상

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그 사실이나 주체가 인식되지 않아 강조하기 위하여 뜻맞는 사람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벌이는 사회적 활동이다. 독서는 그 본질과 기능에서 볼 때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교육의 기초과정으로 교육제도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독서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정착되고 그 기본을 구축하여야 할 국가 基幹산업이고, 민간 단체에서의 本體없는 枝葉적인 움직임은 뿌리없는 운동일 수 밖에 없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활용력 확보와 고등정신력배양은 학교교육의 전체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할 핵심 사항이다. 이는 단순한 문학감상, 여가선용 이전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기초, 기본, 전개, 성숙의 독서능력단계를 거치는 복합적인 기술이다. 교육부에서 체계있고 합리적인 원리에 따라 학교 교육제도속에 자리해야 할 정보기본기술(information skill)이다. 이는 많이 읽어 저절로 형성되기 보다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습 전략이 각 교과목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속에서 명백하게 전 교과목과 연계한 교수 학습제도가 국가에 의해 우선되어야 한다.

2. 가정, 학교, 사회의 三位一體 독서 환경

독자는 母體 胎敎에서부터 주어진 환경과의 계속되는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성장한다. 독서의 내적 생태계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기본기술로 서로 얽혀 성장 발달한다. 언어능력은 인간성, 인지적 과정까지 상호 의존하여 학습력으로 통합되고 있어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기본기술로 작용한다. 독서의 외적 생태계도 서로 상호관계에 있어 어느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기술은 아니다. 성장발달과 함께 독서능력은 가정환경에서 독서준비기를 거쳐 학교환경에서 그 기초와 기본을 이루고 사회환경에서 그 전개와 성숙을 맞이하는 종합적인 기본기술이다.

가정은 부모와 가족, 보이지 않는 그 가정의 전통과 관습과 가정문화 수준에서 오는 가족 구조로써 독서 분위기를 이루는 독서환경이다. 그 중 부모의 역할 모형은 어린이의 실제 시범이 된다.

학교는 독서의 외적 생태에서 밝힌대로 독서를 Information skill의 주체로 보고, 전 교육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이 맞물려 진행되는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할 수 있고, 이어 교과내용을 전하는 매체로 인식하여, 지식내용과 함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과 사고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성 회복으로 개인과 사회 생활에서 성공하게 하므로 국가교육제도속에 內在되어 있는 독서환경이다.

사회는 가정과 학교를 에워싸고 있는 독서환경으로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보다 넓은 독서자료, 출판문화, 도서관문화와 연계하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독서문화의 사회적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독서하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는 口到만이 아니라 眠到, 心到 그리고 足到하는 사회적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독서하는 사람이 이끌기 전에 독서하는 사람이 모인, 또는 독서하는 어른의 뒤를 보고 자라는 어린이가 독서를 생활화하며 성장하여 사회를 이끌어 갈 때 비로서 독서하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가 가능하다. 한편 인간존엄과 인간성 회복이 문제시 되는 정보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문화, 종합문화를 이룩하는 각 사회단체 특히 언론 단체와의

올바른 연계는 절실히 필요한 독서환경이다. 건전한 가정, 학교, 사회의 三位一體에 의한 독서환경조성과 독서교육은 체계화되어야만 한다.

독서교육에서 학교교육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교육의 의식은 건전한 독서생태를 이루는 물결이 되고 인간 자원의 개발과 인류문화의 향상을 긍정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기틀이 될 것이다.

3. 독자에 의한 서평문화의 定着

독서의 외적 생태인 출판문화와 도서관문화의 주체는 독서자료이다. 수없이 많은 자료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가장 적절한 자료를 가장 적당한 독자가 선택하기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자료를 추천하는 출판사의 신간서지, 서평, 서목, 해제는 출판물과 함께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자나 도서관인에 의한 서평문화는 찾을 수 없고 출판계의 일방적인 움직임 뿐이다. 국내 일간지에 실린 출판에 관한 기사도 화제중심, 같은 것끼리 모으는 경향적 기사, 우호적이고 정의적인 짧은 서평, 3줄, 5줄 정도의 도서목록 소개, 일반적 출판계 소식, 단편적 통계, 動向 등이다. 여기에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담당기자의 이해와 취향에 따라 단편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어느 형식, 어느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기사의 바른 선택과 더불어 보도할 만한가를 문화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출판사의 서지, 목록은 비교적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출판사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하여 문화적 의식과 문화배달의 사명을 감추고 있다. 책의 생산과 소비에서 독서환경의 특별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용자인 독자나 독자를 대신한 도서관인에 의

한 서평문화 정착이 절실하다. 언론의 기사도 출판계의 소식만을 근거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독자들의 입장과 소식도 함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독자에 의한 서평이나 도서관인에 의한 서평은 저자와 출판의 無區分, 악화되는 출판구조, 고착화된 도서목록, 나아가 도서문화 환경을 정비하는 핵심이다. 건전한 서평문화의 정착은 독서환경의 천연한 생태를 유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結 言

이상을 요약하면

21세기 미래는 국제화 정보화 사회로 경쟁할 능력의 개선과 환경문제 해결, 영향력 있는 개인을 요구하여, 각 개인은 읽고 쓰는 커뮤니케이션기술과 고등정신력 함양만이 그 큰 도전에 대비하는 길이 된다.

독서의 본질이 전형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한 통로이고 독자가 자신의 지식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저자의 견해를 평가하고 타당성과 가치를 판단하여 구별, 거절,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과정이다. 따라서 인간은 독서를 매체로 창조적 사고가 가능하고 이어 고등정신력을 함양할 수 있다.

독서에는 발달적 학습력, 생산적 사고력, 창조적 적응력, 잠재적 인간성을 類推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다.

독서는 그 내적 생태계에서 개인의 언어 능력, 인간성 그리고 認知과정의 학습력과, 정보처리와 도서관 매체 기본기술 그리고 원문분석 기술의 정보력을 구비하는 인간의 정보기본기술(information skill)을 기르고, 외적 생태에서 독서자료, 출판문화, 도서관문화, 독서교육에 의한 상호의존적인 활동에 영

향을 받아 인간의 복합적 기술(art)로 熟成된다. 그리하여 개인은 독서로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정보활용력과 인간성 회복의 원천으로 천연한 인간환경 보존활동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독서운동의 과제를

- 1) 독서의 본질과 그 생태계의 바른 照明과 認識
- 2) 가정 학교 사회의 삼위일체에 의한 건전한 독서환경의 構築
- 3) 소비자로서 독자에 의한 서평문화의 定着으로 표출할 수 있다.

ACADEMIC BOOK CENTER

韓國의 圖書館과 圖書館協會를
기쁜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美國과 캐나다에서 出版되는
圖書를 貴圖書館에 航空貨物로
신속히 配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公正한 價格과 迅速한
配達로 여러분의 豫算과 時間을
節約하여 드릴것입니다.

連絡處 :

Mr. Dana Levesque
Assistant to the President
Academic Book Center
5600 N.E. Hassalo Street
Portland, OR. 97213
U.S.A.
FAX : 1-503-284-8859

